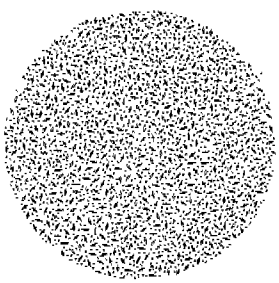
部品産業 跳躍의 好機

— 部品國産化 支援施策을 잡아라 —



유 기 영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절름발이 機械工業

늦기는 하였으나 금년들어 정부당국이 部品國産化施策을 중점적으로 펴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우리나라가 工業立國을 표방하고 나선지 四半世紀에 이르고 있으면서도 機械 및 部品類分野의 생산이 크게 뒤지고 있다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예사일이 아니다. 이 分野의 落後性은 모처럼 高度成長을 이룩한 우리 經濟産業을 半身不隨格으로 格下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이 분야의 낙후성은 同分野의 中小企業의 跛行性을 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무리와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部品國産化는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과제이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對日貿易의 심한 적자 현상도 三低好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深化傾向을 보이는 것도 그 主犯이 기계·部品類의 對日輸入이 激增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部品國産化의 시급함을 절감케 한다.

왜 部品産業이 뒤지게 되었는가

우리나라의 經濟發展과 그 빠른 成長度는 분명히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아시아 NICS(新興工業國群)에서 優等生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工業의 가장 核心的 分野인 機械 및 그 部品産業이 뒤지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그만한 뚜렷한 理由가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60年代이후의 經濟發展에서 볼 때 필연적인 結果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經濟의 急成長을 뒷받침한 것은 輸出主導 政策이었고 이 급속한 輸出産業의 成長은 先進國으로 부터의 資本과 技術의 적극적인 導入과 여기에 韓國의 유일한 부존자원인 근면하고 풍부하며 동시에 저렴한 勞動力이 결합하였다. 여기에 强力한 정부의 輸出支援이 일관성있게 풋쉬한 所産이다 단지 이러한 輸出支援政策이 技術力이나 品質力競爭이 아니고 가격中心의 저가품 경쟁이었음이 사실이다.

外貨導入으로 出帆한 輸出産業은 우선 外貨穫得을 위한 輸出增大로 疾走하게 되었다.

남의 돈을 빌려서 장사를 하면 그 돈의 이자와 元金償還을 위해 더 많은 물건을 팔아야한다. 물론 이러한 국제수지만을 위한 輸出增大는 아니라 하더라도 外資의 需要增大와 상환부담의 증대는 輸出擴大

가 불가피한 騎虎之勢가 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의 輸出支援은 輸出의 主役이 되어있는 大企業으로 集中되었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大企業의 수출효율이 크고 能率性이 높으며 支援効果가 큰대대가 支援하기도 쉽다. 支援이 우선 速効主義가 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輸出産業에 대한 金融, 行政支援등이 大企業으로 집중되는 가운데에서 여기에 편승한 輸出主役 大企業들은 더욱 비대화 되어갔다. 大企業의 수출이란 필경은 組立産業이며 이러한 過程속에서 輸出組立企業들은 증대되는 수출용 中間財며 部品조달을 國內의 中小企業이 아닌 海外에서 조달하게 되었다.

中小企業에서는 사실상 組立企業이 요구하는 우수한 中間財나 部品을 供給할 능력이 없었다. 大企業은 部品을 供給할 系列企業을 育成할 資金力도 技術力도 당초에는 없었지만 그러한 意思도 없었다 때문에 이 시기부터 정부가 中小企業의 機械部品 산업지원을 병행할 일이었으나 정부 역시 그러한 財政力도 技術保有도 없었고 미처 그러한 정책을 立案하지도 못했다. 70년대 中盤에 들어서 한때 中小機械分野 育成에 着眼하여 推進했으나 長期的 眼目이 아닌 일종의 충동적 계획이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행착오로 龍頭蛇尾格으로 그치고 말았다. 이러하여 中小企業의 部品産業은 發芽에서부터 發育에까지 機會조차 잃게된 것이다.

部品의 對日依存 深化문제

건전한 産業構造는 業種間의 均衡發展에서 비롯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産業構造는 以上에서 指摘한바와 같은 과정에 의하여 大企業 중심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中小企業과 大企業간에 심한 격차가 생겨 불안정된 산업구조를 形成하게 되었다. 그것은 곧 産業이라 建築物의 基盤이 되는 中小企業 즉 견고하고 底辺이 넓은 中小企業이 育成되지 못함으로써 二重構造를 形成하게 된 것이다. 특히 中小企業分野에서도 機械部門의 낙후성은 中小企業間의 構造는 말할나위도 없고 全体産業構造에 취약점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組立)의 基盤마저도 不安定하며 大企業 스스로가 안고 있는 큰 취약점이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필요한 中間財나 部品을 國內에서 조달하지 못하고 海外에서의 輸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三低好材에도 불구하고 對日 무역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다름아닌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輸入先多辺化로 對日貿易逆調를 줄이자 하면서도 그리고 三低好期가 對日輸出를 增大하여 對日逆調 시정에 一助가 되리라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逆現象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輸出産業이 수출이 늘어나면 輸入도 따라서 증대되는 体質이라는 것은 물론 원천적으로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素材産業, 部品産業등의 國內生産이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對日逆調 시정이 어려운 것은 오랜동안 그것을 日本에 의존함으로써 그것이 構造化되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日本이 中間財 部品供給의 基地化가 되어 있는 현상이다.

60年代 以來 우리나라의 大多數의 生産設備는 日本에서 導入한 것이고 이러한 設備의 新規導入이나 補完導入도 이미 導入業務가 익숙하고 여러가지 편리하고 有利點이 많은 日本에서 굳이 옮기고 싶지가 않는 것이다. 日本아닌 歐美쪽으로 輸入多辺化가 지적되고 있으나 이미 20여년간이나 우리 손에 익숙하고 그 施設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日本에 비해 월등한 有利點이 없는한 國內既存施設을 歐美型으로 바꾸기란 一朝一夕에 되는 일이 아니다.

거기다가 生産技術面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보인다. 하드技術도 그러려니와 加工技術, 品質管理등 소프트 技術面에서도 日本으로 부터 導入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태이고 보면 對日脫皮란 그만큼 長期的 안목이 필요하다. 어떤 意味에서는 이들의 對日脫皮는 輸入先의 轉換보다는 國産化가 훨씬 有利하다. 이러한 뜻에서도 部品의 國産化政策은 보다 강력히 推進되어야 한다.

韓日間의 技術移轉문제

지금까지 日本의 對韓技術移轉은 日本側의 이른바 부메랑 엄살로 극력 回避해 왔다. 특히 尖端技術分野는 門을 열지 않았다. 그런데 円高로 部品의 國內供給에 가격이 어렵게 되자 韓國, 台灣등 NICS圈에서 輸入하는 움직임 이다. 특히 自動車部品, 電機, 電子部品을 한국이나 대만에서도 購入하겠다

는 것이다. 品質은 日産에 뒤지나 가격면에서 有利하므로 輸入후 약간의 손질로 使用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상당량을 NICS圈에서 購入할 方針으로 이미 現地메이커들과 交涉을 벌이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日本메이커들의 이와같은 동태는 결코 円高에 의한 一時的인 현상이 아니고 장기적인 計劃에서 시발하고 있다. 그 理由는 韓國이나 台灣등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의 機械部品 특히 自動車 電機電子部品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여 몇해 후에는 日本의 수준을 따라잡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部品産業은 사양화 내지 尖端技術을 요하는 新製品만을 생산하고 從來製品은 값싼 아시아 NICS製品으로 轉換한다는 장기적 계획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日本의 부메랑論은 의미가 없어지나 尖端技術만은 移轉에 인색할 것이 분명하다. 그 증거로는 自動車, 전기전자 部品조달을 위한 對韓, 특히 台灣과의 合作工場 건설에 熱을 올리면서도 아시아NICS가 원하는 尖端技術 이전에는 外面하고 있다.

貿易摩擦이 意味하는 것

日本은 무역마찰로 고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등 아시아NICS도 앞으로 무역마찰은 深化될 조짐이다. 美日간의 무역마찰이 점차 아시아新興工業國으로 옮겨지는 것은 불가피한 추세로 보아진다. 이것이 급속한 국내시장 개방을 촉진케 한 요인이 되어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또 이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輸出市場을 지금까지의 美日편중에서 EC등 유럽지역으로 進出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立場에서는 日本이나 우리는 同一한 운명에 있다. 歐美로 부터 貿易摩擦에는 共同으로 대처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최근의 日本動向 즉 部品의 海外調達을 韓國, 台灣등으로 轉換하는데는 日本메이커들의 長期的 布石을 엿볼 수 있다. 아시아 NICS, 중에서도 韓國, 台灣등 상당한 水準에 이르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部品供給의 基地化하려는 동향임 을 짐작할 수가 있다.

日本의 円高는 당장은 해소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또 日本의 韓國등에 대한 部品調達도 사당기간에 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우리 정부당국의 集中的인 部品産業育成策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우리 部品業界가 部品産業에 革新的契機를 이룩하는 가장 좋은 시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部品業界는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으로 안다. 心機一轉하여 部品의 질적향상에 노력하여야할 天載一遇의 기회임을 인식하여 三低好材와 정부의 部品産業 지원시책을 1백프로 활용함으로써 部品産業 도약의 기본 구축에 全力投球할 때이다. *

(108페이지에서 계속)

3. 조사동계
 ○전기공업편람 발간준비
  • 전기기기 품목별 생산실적통계작성
  • 업종별 일반경제지표
  • 업종별 생산성지표
  • 업종별 대차대조별
  • 업종별 성장율지표
4. 전기사용합리화
 ○현장기술지도실시완료 : 금성계전청주공장외 14개 업체
 ○현장기술지도결과통보 : 한국전력공사에너지관리실
 ○사례집배부 : 6,000부
  • 배부처 : 회원사 및 기사회원, 정부기관및 관련단체
5. 전력원단위조사연구
 ○현장조사실시
  • 한국유리와 19개 업체
  • 조사기간 : 7. 1~7. 16

자료입수

• 도서 : 국내 - 52권
 일본 - 21권
 구미 - 31권
• 정간물 : 국 내 - 92권
 아시아 - 69권
 구 미 - 6 권

*